

업비트 D 컨퍼런스

두나무, 자체 블록체인 ‘기와’ 공개… “스테이블코인 지원”

오경석 두나무 대표, 비전·전략 발표
지갑·커스터디 등 금융 인프라 준비
“디지털자산 산업 주도권 확보할 것”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블록체인 혁명’을 맞아 ‘K-금융’의 글로벌 도약을 선언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블록체인 기와(KIWA) 등을 통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국내 대표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서 오 대표가 두나무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UDC는 2018년 시작된 이후 매년 개최돼 왔으며, UDC 2025는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Blockchain, to the Mainstream)’를 주제로 블록체인의 기술과 산업적 활용이 본격화되는 흐름을 다룬다.

이날 오 대표는 취임 후 처음 공식 석상에 올랐다. 그는 “인터넷 혁명과 인공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지능 혁명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다면, 신뢰 기반 블록체인 혁명에서는 한국이 공세적 포지션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며 “세계적 규모와 기술력을 확보한 업비트는 대한민국 대표주자로서 글로벌 무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버블은 진화의 통과의례이고, 버블이 아니라 진화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며 “코스피·코스닥의 총 시가총액은 약 3000조원이지만 글로벌 디지털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5400조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자산 보유자는 약 5억6000만명으로,

한국 인구의 11배에 해당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부연이다.

오 대표는 “비트코인은 금, 주식을 포함해 전 세계 자산 중 시가총액이 7위에 해당할 정도로 큰 가치를 담은 자산이 됐다”며 “다수가 버블을 말할 때,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혁신으로 바라보며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관투자자 유입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지니어스법) 통과 등을 진행시키면서 디지털자산 중심을 이끌고 있다.

이어 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금융 주권의 핵심으로 부상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 활성화는 거래소의 유통 역량과 블록체인 인프라 확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00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점유율 99%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업비트는 작년 기준 현물거래

금액이 1740조원으로 국내 1위 거래소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최상위 4위권 안에 드는 거래량을 가지고 있다”며 “업비트가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한다면 한국의 금융이 아시아를 거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바탕으로 채인, 지갑, 트레이블 솔루션, 커스터디 등 금융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두나무는 자체 블록체인인 기와와 기와 월렛을 선보였다. 업비트는 기와를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와월렛은 웹2와 웹3 서비스 모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다.

마지막으로 오 대표는 “두나무는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미래 금융 모델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미래의 금융을 한국에서 시작하겠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는 ‘K-금융’을 두나무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에릭 트럼프 “암호화폐, 우리시대 최고의 자산이 될 것”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차남〉

암호화폐 시장 진입 최적시기 강조
“변화는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그룹 총괄 부사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이 우리 세대의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릭 트럼프는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가장 변혁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오는 통화환경을 만들게



에릭 트럼프 트럼프오거니제이션 총괄 부사장이 ‘업비트 D 컨퍼런스(UDC)’ 참석해 화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철도를 깔고 있다”이라며 “1800년대 초반에 철도가

세계를 바꿨고, 이제는 암호화폐가 세계를 바꾸고 규칙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는 치열하게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따라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은 우리 세대의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내가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창업한 이유”라며 “암호화폐는 인터넷의 성장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에릭 트럼프는 트럼프 일가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트럼프그룹 부사장인 한편,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아메

리칸 비트코인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전략책임자로(CSO)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숙제가 남아 있을 것으로 봤다. 에릭 트럼프는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에서도 손꼽히게 디지털자산을 잘하고 있는 국가”라면서도 “한국을 비롯해 당국을 설득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크립토 도입을 주저하더라도 변화는 일어난다.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 회사와 정부가 존재하고, 이미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며 수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는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에릭 트럼프는 “전세계 최고의 일가와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고 있고, 그 중 비트코인은 2100만개로 한정돼 있지만 그 가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도 디지털자산을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업비트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에 뒤처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디지털자산이 탈중앙화 금융(DeFi)의 영역을 벗어나고 대중에게 외탈게 될 때,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중적 도입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성장할 여력이 아직 많이 남은 만큼 지금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진입 시기”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금값 연일 최고가… 온스당 3650달러 육박

美 금리·선진국 재정 건전성 영향
“헤지 수단으로서 금 지위 높아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최근 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겹치면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런던금시장협회(LBMA)에서 금 현물 가격은 한때 온스당 3646.29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된 금 선물 근월물(12월분) 가격은 전날보다 0.7% 상승한 온스당 3677.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 같은 금등세는 Fed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이다. 미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 7

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18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약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글로벌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도 금값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번지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고 있다.

미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 점도 금값 상승의 요인이다. 다른 통화를 보유한 사람들이 금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올해 들어 다른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0% 하락했다.

ING의 글로벌 시장 리서치 대표 크리스 터너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인플레이션 헤지(회피) 수단으로서 금의 지

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터너는 끈질긴 인플레이션 속에서 투자자들이 연준의 통화 완화 사이클이 좀 더 일찍, 더 깊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실질금리는 다시 마이너스(하락)로 갈 준비가 된 걸로 보이고, 인플레이션 헤지로서 금은 다른 자산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 강세에는 구조적 원인이 자리한다고 봤다. 그는 “먼저 세계 분절화 심화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 매수에 나섰다”면서 “러·우 전쟁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미 달러 자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2010년대 중후반에 비해 금 매수 규모를 늘렸다”고 전했다.

한편, 금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개미들이 몰려들고 있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요 금 ETF 5종의 최근 1주 사이의 총자금 유입금은 4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하은 기자

삼성증권-칸토, 금융 서비스 협력 강화

디지털 금융 등 혁신적 솔루션 제공

삼성증권은 글로벌 종합금융사 칸토와 전략적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8일(현지시간) 뉴욕의 칸토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미 진행 중인 양사 간 미국주식 브로커리지 서비스 외에도 자금 조달, 디지털 금융, 리서치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양사의 글로벌 범위를 확장하고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1945년에 설립된 칸토는 뉴욕 본사를 비롯해 전 세계 60개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금융사로, 기업금융(IB)을 비롯해 자본 시장, 채권·주식 거래, 프라이빗 서비스, 리서치, 자산 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걸쳐 탁월한 전문성과 혁신적인 상품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왼쪽부터)칸토 공동 최고경영자 파스칼 밴들리(Pascal Bandelier)와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이 8일(현지시간) 뉴욕의 칸토 본사에서 포괄적 업무제휴를 진행했다. /삼성증권

루션을 제공 중이다.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은 “칸토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세계 투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는 흥미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